일 주 문



문화훈장 옥관 수상

성파 통도사 방장직무대행 스님은 11월 21일 국립현대미술관서 2017 문화예술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문화훈장 옥관을 받았다.



송년 내비둬콘서트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12월 23일 오후 7시 금산사 화림선원서 '2017년 송년 내비둬콘서트'를 개최한다.



문화재지킴이 수기공모

심산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12월 3일까지 제8회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수기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모범 불청인 시상식

김성권 (사)대한불교청년회장은 12월 2~3일 전주 수현사에서 '2017 모범 불청인 시상 및 송년법회'를 봉행한다.



공무원불자 사회봉사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12월 9일 서울 금천구립 사랑채 요양원에서 '제15차 사회봉사의 날'을 실시한다.

상임감찰 기원·조사과장 보선

연등회 사무국장엔 법웅 스님



기원 스님



보선 스님



법웅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11월 22일 호법부 상임감찰에 기원 스님, 조사과장에 보선 스님,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에 법웅 스님을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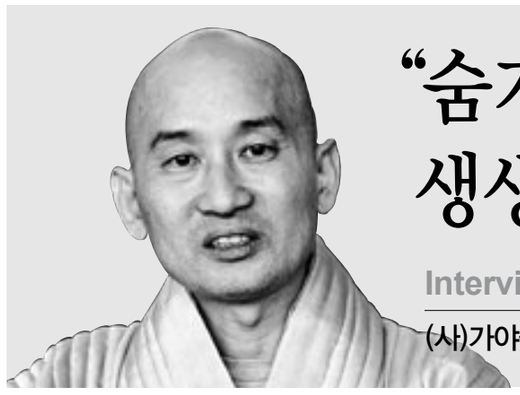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종단 종무직 소임자는 봉사와 희생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열정을 갖고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감찰 기원 스님은 행돈 스님을 은사로 1989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대원사 동국제일선원, 승가사 제일선원서 안거 수행했으며, 용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조사과장 보선 스님은 세영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상원사 용문선원서 안거 수행했다.

연등회보존위 사무국장 법웅 스님은 성월 스님을 은사로 2000년 수계했다.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화엄사 선등선원, 신흥사 향성선원, 해인총림선원, 덕숭총림선원, 공림사 감인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윤호섭 기자



"숨겨진 가야불교 숨결, 생생하게 느끼도록 전달"

Interview

(사)가야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인해 스님

"4년 전 선지식 법문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법문 내용에 김해지역 이야기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기 48년 허황옥이 인도에서 장유화상과 함께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해 부처님의 법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연기 사찰이 건립된 내용을 스님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11월 25일 김해 바라밀선원에서 사단법인 가야불교문화진흥원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이사장으로 취임한 인해 스님<사진>은 처음 가야불교문화를 생각했던 4년 전을 떠올리며 마음이 두근거린다고 답했다.

"김해에 계신 스님들과 함께 공부를 이어가고 학술대회도 열며 가야불교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야사 복원이란 국정사업을 발표하셨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올 것이란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가야불교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해 스님은 가야불교를 널리 알리는 한편, 김해지역 불교가 하나 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발원했다. 이를 위해 스님

4년 전 부터 가야불교 연구

가야지역 구심점 역할 담당

보존·전승 위한 학술대회

"진실성 알려 대중과 호흡"

은 김해를 넘어 창원, 부산, 하동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했다.

"이번 출범식을 맞아 고문과 자문 스님을 새롭게 모셨습니다. 창원 성주사 주지 원종 스님, 하동 칠불사 주지 도응 스님, 성주사암연합회장 정도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동서 화합에 앞장설 뿐 아니라 가야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 거점지로 활동할 것입니다."

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주요사업은 △가야문화·역사·인물 바로알기 체험 및 교육 △전통생활문화 보존·보급 △지역사회발전 △문화유산 연구·발굴·보존·보호와 선양 △가야불교문화 시설·유적·유물 복원 및 관리 진흥 △복지시설지원·장학사업·문화예술인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사업 및 행사 주관 후원 △언론출판 등이다.

인해 스님은 이 중에서도 학술대회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개최해 가야문화 발굴에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가야불교는 아직 열지 않은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지금 김해지역에는 '가야'가 원형 그대로 묻혀 있습니다.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불교문화의 진실성을 반드시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놀라운 가능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인해 스님은 "가야불교가 실증적 증거가 미약하다고 실체를 부정한다"며 "지금까지 전승돼온 수많은 이야기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가야문화라는 진정한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가야불교문화진흥원은 김해 여여정사에서 '구지회'라는 이름으로 2014년 시작됐다. 2016년 '법등회'로 이름을 변경하고 가야불교중흥을 위한 3000배 참회대법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동명대학교 인도문화연구소와 가야불교의 원형탐색과 콘텐츠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도 열어 가야불교 발굴에 앞장서 왔다. 하성미 기자

"어린이 인성교육으로 전법을"

제4대 동련 이사장 신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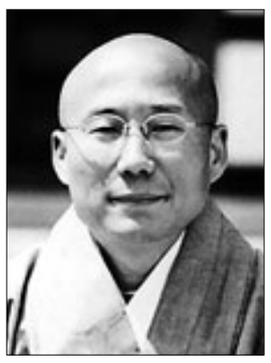
제4대 동련 이사장으로 창원 구룡사 주지 신공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11월 25일 경주 황룡원에서 열린 제6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입재식에서 취임한 스님의 취임 일성은 새로운 어린이 포교였다.

신공 스님은 "어린이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며 "아이들이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인성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동련 내 어린이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 정비에 역주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불교 활동과 함께 어린이 불자상을 정립하고 불교 전문가들간의 교육, 활동 네트워크 구성과 시대 흐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만이 돌파구"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동련의 전국조직으로의



11월 25일 경주 황룡원서 취임

눈높이 맞는 다양한 교육 시사

네트워크 활성화도 약속했다. 현재 동련은 전국단위 어린이 포교단체지만 영남지역 회장단 구성 및 사무국 존재로 지역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스님은 "전국 조직으로 영향력을 높이는데도 신경을 쓸 것"이라며 "지역별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각 지역의 어린이 포교의 어려움을 경청해 함께 문제를 돌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공 스님은 지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07년 동국대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앞장섰다. 특히 마산 정법사와 서울 법장사에서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를 지내며 그 중요성을 체감했다. 이후 2006년 창원 구룡사에서 주지로 있으며 2009년 어린이 법회를 개설하고 활성화 시켰다. 2009년 동련 이사로 취임 후 2014년부터 동련 상임이사를 맡아 살림을 챙겨왔다.

스님은 "어린이 포교는 불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미래 불교의 씨앗"이라며 "사찰에서 어린 불자들의 소리가 즐겁게 울려퍼지도록 모두 함께 힘차게 전법 포교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佛法 홍포·외호 역할해달라"

설정 스님, 本紙 사장단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현대불교신문사에 불법 홍포와 외호 역할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설정 스님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예방한 본지 사장 혜도 스님과 박종수 사장에게 이 같이 말했다. 설정 스님은 먼저 1980년대 수덕사 주지 시절, 방장 혜암 스님에게 조언을 구하러 온 본지 설립자 대행 스님과의 인연담을 풀어놓았다.

설정 스님은 "대행 스님은 혜암 스님에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여쭸다. 그러자 혜암 스님께서는 '현금(現今)을 보라'고 하셨다"면서 "이후로 대행 스님이 다시 수덕사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열반에 들어 안타까웠다"고 술회했다.

설정 스님은 이어 본지가 교계신문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선양하고, 대행 스님이 주창한 인간성 발현과 자성을 밝히는 데 앞장서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혜도 스님과 박종수 사장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들어 정진하겠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설정 스님은 또 "불교를 욕되게 하고, 불자들을 괴롭히는 세간의 일에 교계신문이 나서 진실한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부처님 법이 훼손되고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정문 스님, 홍보국장 효신 스님과 본지 김주일 편집국장, 신성민 취재부장 등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해인승가대학 동문회 정기총회

19대 총동문회장 여연 스님 선출



해인사승가대학 총동문회(회장 동명)는 11월 21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17 해인승가상을 선정·시상했다. 이날 보광 스님(부산 전등사 회주)이 해인승가대상에 선정됐으며, 해인승가상은 수진 스님(담양 용화사 주지)·일관 스님(남양주 봉선사 주지)·원일 스님(나주 미륵사 주지)이 수상했다. 원력상에는 윤봉택 거사(제주 서귀포불교대학장)·이성국 거사(서울 양천구의회 의원)가 선정됐다. 또한 제19대 총동문회장으로 강진 백련사 회주 여연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재)해인동문장학회(이사장 일면)는 올해 장학승 34명에게 총 2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